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년 6월 8일(화) |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저임금노동자 가계부를 통해 본 실태생계비 : 월17만5천원 적자로 노동빈곤상태

- 저임금노동자의 4월 한달 가계부 분석 결과 노동빈곤 상태로 확인됨.

- 소득분위상 최하위(1분위, 노동자가구)와 유사한 가계구조를 보이고 있음.

-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

1.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중 저임금노동자(주 40시간 이상 노동, 월급여 1,822,480원(최저임금)에서 2,733,720원(최저임금의 150%)를 받고 있는 노동자)를 14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4월 한 달간의 가계부를 통해 실태생계비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2. 조사결과 저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근로)소득은 2,366,856원인데 반해, 가계지출은 2,541,804원으로 17만5천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결과(16만원 적자)와 마찬가지로 저임금노동자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노동빈곤 상태로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패턴의 반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 조사에 참여한 저임금노동자는 저임금으로 가구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활동(아르바이트)과 생활비지원(정부 혹은 자녀), 대출 없이는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가계부채 평균이 42,857,143원으로 월평균 219,236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식주에 사용되는 생계비 비중 높은 것으로 기본적인 생활 영위 이외의 다른 활동(문화생활 등)을 하기 힘든 가계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조사결과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150%를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각 언론사에서는 보도 및 취재 과정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첨부 : 저임금노동자 가계부 조사 분석결과 1부. 〈끝〉

저임금노동자 가계부 조사 분석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작성하고,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저임금노동자가 실제 지출하는 생계비와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속에 실제 가계부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소득 대비 생계비 지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함.

2) 조사대상 및 방식

-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중 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4월 한 달간의 가계부를 통해 실태생계비 현황을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인 저임금노동자는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월 1,822,480원)에서 최저임금의 150%(시급 13,080원 월 2,733,720원) 이하로 설정하였음.
- 가계부 조사는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소속 조합원 14명이 참여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조합원의 연령은 30대 3명, 40대 5명, 50대 5명, 60대 1명이며, 가구원수는 1인가구 6, 2인가구 3, 3인가구 4, 4인가구 1로 구성되었음. 조사에 참여한 조합원이 해당 가구의 주된 소득원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알바를 통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참가자가 3명 있었음.

	연령	거주지역	업무	소득원수	가구원수
1	34	경기	공공기관	1	1
2	37	전북	일반사무	1	1
3	39	서울	방송통신	1	1
4	43	서울	마트	1	3
5	43	인천	공무직	1	3
6	46	인천	가스검침	1(알바병행)	2
7	47	경기	시설관리	1	1
8	49	경남	마트	1	2
9	50	서울	보육	1(알바병행)	2
10	52	충북	수도검침	1	4
11	55	서울	마트	1	3
12	56	부산	청소미화	1	1
13	58	경기	공무직	1(알바병행)	1
14	60	충북	청소미화	1	3
평균	**47.8**	**-**	**-**	**1**	**2**

- 조사방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소비지출 12개 항목(①식료품·비주류음

료 ②주류・담배 ③의류・신발 ④주거・수도・광열 ⑤가정용품・가사서비스 ⑥보건 ⑦교통 ⑧통신 ⑨오락・문화 ⑩교육 ⑪음식・숙박 ⑫기타상품・서비스)과 비소비지출을 조사하였음. 소득은 임금(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2. 조사결과 요약

1) 임금(근로)소득 기준 월 17만5천원 적자의 노동빈곤 상태인 저임금노동자

- 저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근로)소득 2,366,856원인데 반해, 가계지출은 2,541,804원으로 17만5천원의 적자 발생. 2011년 진행한 저임금노동자 가계부 조사결과(평균 16만원 적자)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노동빈곤 상태인 것이 확인됨. 사실상 임금을 통한 자산증식은 불가능하며,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패턴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이전소득(정부의 지원금 혹은 가족의 생계비 지원) 혹은 채무 없이는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저임금노동자의 소득과 생계비 지출 상황은 통계청 2021년 1/4분기 기준 1분위 가구(노동자가구)와 유사한 가계구조로 보임.

2) 저임금으로 가구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임금노동자

- 조사에 참여한 14명의 조합원 모두 가구 구성원 중 소득 활동(맞벌이)을 하는 구성원 없이 본인이 가족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 2인에서 4인가구(총 8명) 모두 1인의 임금(근로)소득으로 가구생계가 유지되고 있음. 일부(3명) 조합원은 알바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가중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평균이 42,857,143원으로 월평균 219,236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늪은 이자비용으로 비소비지출이 증가로 가계의 총지출이 높아지고 이는 가계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함.

4) 의식주에 사용되는 생계비 비중이 높음

-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15.2%), 의류・신발(5.2%), 주거・수도・광열(11.8%)로 의식주와 관련된 지출비중이 32.1%로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등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숙박 관련 소비는 감소한 것을 감안해 의식주에 음식・숙박(12.9%)비를 포함할 경우 전체 소비지출 중 의식주에 사용되는 비용이 45.1%에 해당함.
- 저소득층에서 보이는 소비지출의 성향과 유사한 것으로 기본적인 생활 영위 이외의 다른 활동(문화생활 등)을 하기 힘든 가계구조로 해석할 수 있음.

-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150%를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비지출 구조는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5)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민간보험 지출이 많음

- 소비지출 중 기타상품·서비스의 비중이 14.5%로 통계청 2021년 1/4분기 기준 5분위 소득층 가운데 최하위층(노동자가구 기준 7.5%)과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평균 205,402원의 민간보험료 지출이 1분위의 기타상품·서비스의 지출 비중보다 7.0%p 높은 원인으로 보임. 이는 높은 의료비용 부담 등 부족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원인으로 보임.

4월 평균 소득 및 지출

(단위 : 원, %)

	금액	구성비	
가구원수(명)	2.00		-
가구주연령(세)	47.8		-
임금(근로)소득	2,366,856		100.0%
가계지출	2,541,804	100.0%	
소비지출	1,865,375	73.4%	100.0%
식료품·비주류음료	282,837	11.1%	15.2%
주류·담배	-	0.0%	0.0%
의류·신발	96,176	3.8%	5.2%
주거·수도·광열	220,453	8.7%	11.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76,625	3.0%	4.1%
보건	128,703	5.1%	5.1%
교통	112,881	4.4%	6.1%
통신	132,444	5.2%	7.1%
오락·문화	191,089	7.5%	10.2%
교육	110,433	4.3%	5.9%
음식·숙박	242,580	9.5%	13.0%
기타상품·서비스	271,154	10.7%	14.5%
식료품+음식	525,417	20.7%	28.2%
의식주 1	599,465	23.6%	32.1%
의식주 2	842,046	33.1%	45.1%
비소비지출	676,429	26.6%	
흑자액	-174,948		-
부채평균	42,857,143		

주 : 1) 흑자액 = 임금(근로)소득 - 가계지출
2) 의식주 1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의류·신발 + 주거·수도·광열
3) 의식주 2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의류·신발 + 주거·수도·광열 + 음식·숙박

3. 소득 및 지출 동향

1) 소득동향

- 14명 저임금노동자의 4월 평균 임금(근로)소득은 2,366,856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임금인상 소급분, 알바노동을 통한 추가근로소득 등을 고려할

때 실질임금은 최저임금의 20% 이상을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4월 가구당 평균 소득

(단위 : 원, %)

	금액	구성비
가 구 원 수 (명)	2.00	-
가 구 주 연 령 (세)	47.8	-
임 금 (근 로) 소 득	2,366,856	100.0%

2) 지출동향

-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2,541,804원으로 임금(근로)소득 2,336,856원보다 17만5천원이 높아 가계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가계지출은 소비지출 73.4%와 비소비지출 26.6%로 구성되어 있어, 2021년 1/4분기 기준 1분위(노동자 가구)와 유사한 가계구조를 보이고 있음.

⑴ 소비지출동향

- 14명의 저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865,375원으로 2021년 1/4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1분위(노동자가구)의 소비지출 1,877,587원과 비슷한 규모를 보임.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가계구조가 5분위 소득층 가운데 최하위층(1분위 노동자가구)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15.2%), 의류・신발(5.2%), 주거・수도・광열(11.8%)로 의식주와 관련된 지출비중이 32.1%로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등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숙박 관련 소비는 감소한 것을 감안해 의식주에 음식・숙박비(12.9%)를 포함할 경우 전체 소비지출 중 의식주에 사용되는 비용이 45.1%에 해당함.
- 기타상품・서비스에 지출된 전체 비용 중 평균 205,402원의 민간보험료 납부가 기타상품・서비스의 지출을 높인 것으로 확인됨. 이는 높은 의료비용 부담 등 부족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원인으로 파악됨.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향상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민간보험 가입비용을 줄여 저임금노동자의 소비지출 구조 개선이 필요함.

⑵ 비소비지출 동향

- 14명의 저임금노동자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액은 676,429원으로 가계지출의 26.6%에 해당함. 이는 2021년 1/4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1분위(노동자가구)의 비소비지출(387,388원, 17.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도시노동자 2인가구의 비소비지출(969,533원, 29.4%)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됨.
- 저임금노동자의 비소비지출이 높은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평균이 42,857,143원으로 월평균 219,236원의 이자비용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조세와 4대보험에 지출되는 총 비용은 284,719원으로 노동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세금과 4대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제도가 필요함.

4월 평균 가계지출

(단위 : 원, %)

	금액	구성비	
가 구 원 수 (명)	2.00		-
가 구 주 연 령 (세)	47.8		-
가 계 지 출	2,541,804	100.0%	
소 비 지 출	1,865,375	73.4%	100.0%
식 료 품 · 비 주 류 음 료	282,837	11.1%	15.2%
주 류 · 담 배	-	0.0%	0.0%
의 류 · 신 발	96,176	3.8%	5.2%
주 거 · 수 도 · 광 열	220,453	8.7%	11.8%
가 정 용 품 · 가 사 서 비 스	76,625	3.0%	4.1%
보 건	128,703	5.1%	5.1%
교 통	112,881	4.4%	6.1%
통 신	132,444	5.2%	7.1%
오 락 · 문 화	191,089	7.5%	10.2%
교 육	110,433	4.3%	5.9%
음 식 · 숙 박	242,580	9.5%	13.0%
기 타 상 품 · 서 비 스	271,154	10.7%	14.5%
식 료 품 + 음 식	525,417	20.7%	28.2%
의 식 주 1	599,465	23.6%	32.1%
의 식 주 2	842,046	33.1%	45.1%
비 소 비 지 출	676,429	26.6%	

주 : 1) 의식주 1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의류·신발 + 주거·수도·광열
2) 의식주 2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의류·신발 + 주거·수도·광열 + 음식·숙박

4. 가구별 소득 및 지출

- 가구별 소득 및 지출을 확인해보면 30대(여) 1인가구의 소득대비 지출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전반적으로 식료품 등 의식주 관련 지출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들의 지출규모가 크지 않은 이유로는 가계부채가 없고,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비소비지출과 기타상품・서비스 규모가 낮은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모든 가구의 소득원은 1인으로 1명이 전체 가족구성원(최대 4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낮은 임금으로 인해 3가구가 알바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있으나, 알바를 통한 소득수준은 374,450원으로 주된 임금(근로)소득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들 가구의 경우 알바를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수지가 적자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30대(여) 1인가구 등 5가구를 제외한 9가구 모두 가계수지가 적자이며, 50대(여) 4인가구와 60대(여)3인 가구도 흑자규모가 크지 않음. 50대와 60대 가구의 경우 별도의 생활비지원(자녀로부터)으로 임금(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원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됨. 다른 가구 역시 알바, 정부로부터의 공적지원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가계부채의 규모가 클수록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의 가구에서 이자비용이 비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거나 가구원수

가 많은 경우 대체적으로 민간보험 가입이 많아, 기타상품·서비스 항목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규모는 가구원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14개 가구 중에서 3개 가구는 조사 기간에 오락·문화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아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 다만 일부 가구에서 오락·문화 비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경우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50대(여) 2인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의 치료비로 100만원이 넘게 지출되었으며,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나온(30만원 이상) 가구 역시 컴퓨터 구입 등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함에 따라 지출이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됨.
-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150% 이하를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알바, 정부의 공적이전,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등이 존재해도 가구구성원이 많을수록 가계지출규모가 높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가구별 소득 및 지출1

(단위 : 원)

	30대(여) 1인가구	30대(여) 1인가구	30대(남) 1인가구	40대(남) 1인가구	40대(여) 2인가구	40대(여) 2인가구	40대(여) 3인가구
임금(근로)소득	2,635,610	2,447,150	2,593,830	2,258,700	2,577,000	2,002,390	1,998,000
가계지출	1,724,925	1,317,451	2,857,296	2,406,893	3,527,116	2,500,128	1,860,276
소비지출	1,189,305	916,191	2,304,086	1,430,800	2,119,424	2,286,165	1,403,836
식료품·비주류음료	385,065	261,386	28,990	147,000	415,361	180,030	330,410
주류·담배	0	0	0	0	0	0	0
의류·신발	197,340	0	0	0	80,670	0	126,715
주거·수도·광열	0	36,430	305,090	113,130	117,680	171,130	242,13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56,180	99,620	0	243,640	73,880	0	2,900
보건	25,040	60,800	0	333,100	270,350	11,500	2,000
교통	131,650	56,800	72,600	15,000	275,683	157,945	105,500
통신	0	53,540	344,940	144,210	405,830	218,040	0
오락·문화	8,500	40,900	482,500	167,000	23,040	99,190	166,010
교육	0	0	0	71,200	155,430	580,000	0
음식·숙박	259,450	306,715	924,700	20,000	264,200	214,710	245,500
기타상품·서비스	126,080	0	145,266	176,520	37,300	653,620	182,671
식료품+음식	644,515	568,101	953,690	167,000	679,561	394,740	575,910
의식주 1	582,405	297,816	334,080	260,130	613,711	351,160	699,255
의식주 2	841,855	604,531	1,258,780	280,130	877,911	565,870	944,755
비소비지출	535,620	401,260	553,210	976,093	1,407,692	213,963	456,440
흑자액	910,685	1,129,699	-263,466	-148,193	-950,116	-497,738	137,724

주 : 1) 흑자액 = 임금(근로)소득 - 가계지출
2) 의식주 1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의류·신발 + 주거·수도·광열
3) 의식주 2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의류·신발 + 주거·수도·광열 + 음식·숙박

가구별 소득 및 지출2

(단위 : 원)

	40대(여) 3인가구	50대(여) 1인가구	50대(여) 1인가구	50대(여) 2인가구	50대(여) 3인가구	50대(여) 4인가구	60대(여) 3인가구
임금(근로)소득	2,495,000	1,900,000	2,695,350	2,728,950	2,121,000	2,714,230	1,968,780
가계지출	3,569,915	2,215,053	4,062,401	3,004,480	2,141,290	2,494,270	1,903,765
소비지출	2,829,404	1,548,431	2,819,525	2,243,950	1,791,850	1,630,410	1,601,871
식료품·비주류음료	238,430	271,580	331,370	171,010	402,890	370,200	425,989
주류·담배	0	0	0	0	0	0	0
의류·신발	38,500	51,300	350,000	0	194,970	146,400	160,570
주거·수도·광열	379,900	137,280	200,066	350,000	537,590	354,470	141,44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54,305	28,900	134,121	31,180	111,750	0	136,280
보건	17,000	151,000	899,456	0	0	31,600	0
교통	64,210	145,150	100,000	29,000	127,500	263,000	36,300
통신	212,410	36,500	37,620	128,910	200,150	31,670	40,390
오락·문화	341,670	0	0	1,276,450	0	39,080	30,910
교육	739,428	0	0	0	0	0	0
음식·숙박	235,150	119,900	212,500	257,400	0	272,200	63,700
기타상품·서비스	408,401	606,821	554,392	0	217,000	121,790	566,292
식료품+음식	473,580	391,480	543,870	428,410	402,890	642,400	489,689
의식주 1	656,830	460,160	881,436	521,010	1,135,450	871,070	727,999
의식주 2	891,980	580,060	1,093,936	778,410	1,135,450	1,143,270	791,699
비소비지출	740,511	666,622	1,242,876	760,530	349,440	863,860	301,894
흑자액	-1,074,915	-315,053	-1,367,051	-275,530	- 20,290	219,960	65,015

주 : 1) 흑자액 = 임금(근로)소득 - 가계지출
2) 의식주 1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의류·신발 + 주거·수도·광열
3) 의식주 2 = 식료품·비주류음료 + 의류·신발 + 주거·수도·광열 + 음식·숙박